



조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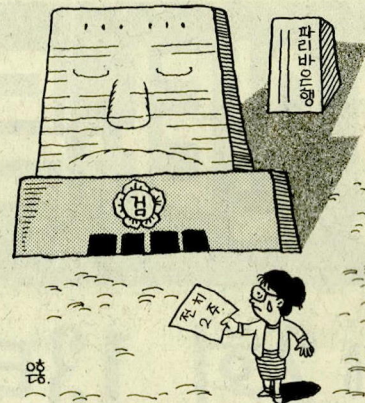
“피끓는 분노를 지나, 도저히 메워질 것 같지 않은 억울함을 삭여오면서, 지금은 차분하고도 냉정한 마음으로 프랑스의 양심과 고양된 권리의식에 호소합니다.”

서울주재 프랑스은행인 파리바은행에서 일하다가 지난 2월 22일 해고당한 박현옥(33)씨가 복직투쟁을 하면서 지난 3월10일 프랑스의 <르 몽드>에 보낸 기고문의 첫 구절이다.

박씨는 파리바은행 서울지점 개점초부터 13년간 대부업무를 맡아왔고 남편은 대학강사로서 학업을 계속중이며 두 아이의 어머니로 시부모를 모시고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해고당시 그의 월평균임금은 1백40만원이며 파리바은행노조 재의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말썽을 일으켜 은행으로부터 해고당해도 무방한 처지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자신보다 경력이 10년이나 짧은 새 과장인 최승일씨와 업무관계로 갈등이 잦았던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폭언과

함께 최씨로부터 뺨·머리·귀 등을 사정없이 얻어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알랭 드 쌍투 지점장은 ‘상사명령불복종’을 이유로 박씨를 사실상의 강등인 임시직 부서로 전직시켰다. 박씨의 고발에 의해 구속된 최씨는 폭력전과 3범으로 벌금 50만원을 물고 열흘 뒤에 풀려났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고 ‘여성의 진화가 은행을 규탄하고 나서자 은행쪽은 “최 과장의 지시는 적법한 것이었고 ‘서로 싸운 것’인데 박씨가 그릇된 내용을 언론에 보도케 함으로써 은행의 명예를 떨어뜨렸고 외부단체를 끌어들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부당한 해고절차에 항의하던 박씨가 진



파리바은행, 검찰 그리고 박현옥씨

술서를 복사하려는 과정에서 지점장이 박씨의 팔을 뒤에서 잡고 끌고 가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쌍투 지점장을 폭행현행범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40여일간 조사를 한 경찰이 서울지검에 폭행치상으로 송치하였고 지난 7월28일 홍석조 주임검사는 고소인인 박씨의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으며 또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도 인정기 어렵다’고 처리하였다.

박씨는 그동안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영권침해라는 이유로 두번 다 기각되었다.

박씨는 폭행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은 없었으나 최 과장으로부터 매를 맞은 직후 얼굴이 통통 붓고 우는 것을 본 동료에 있었고 지점장이 박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쿵 쿵 딱 딱’ 소리를 들은 동료도 있었으나 그들은 증언 요청에 응해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 지점장이 해고통지할 때부터 폭행할 때까지의 정황이 생생하게 녹음된 테이프와 녹취록을 검찰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과 “박씨가 지점장에게 달려들어 때렸다”고 검찰에서 증언한 은행경비대장 이태희씨가 3월24일 증언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검찰처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한다.

박원순씨를 비롯한 5인의 변호인단은 ‘정의에 반하고 형평을 무너뜨리는’ 검

찰처리에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제기했다. 1.처분검사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테이프 등 증거를 재검토하고 참고인 이태희씨의 주소를 찾아줄 것을 고소인에게 요구하면서 7월중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이튿날 황급히 결론을 내린 이유는? 2.피고소인 알랭 드 쌍투가 무혐의라면 고소인인 박현옥씨는 엉뚱한 사람을 걸어 고소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를 무고죄로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3.박현옥이 입은 상해가 2주진단이 나왔는데 쌍투에 의해 입은 것이 아니라면 박의 자해에 의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그를 무고죄로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4.경찰에서조차 대질신문을 통해 상호모순된 진술의 허

점을 파헤쳤는데 검찰에서는 왜 당사자인 박과 알랭과의 진술차이를 해명해보려 하지 않는지? 5.경찰수사 당시 경찰당국에 의해

출국정지된 쌍투를 처분검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해제하였고, 그 해제조치에 대해 담당검사는 피고소인의 변호인 김찬진 변호사의 청탁과 부장검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번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외부 인사나 내부 상사의 압력은 없었는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이 글을 쓰기 전에 필자가 파리바은행 지점장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은행쪽 변호인인 김찬진씨에게서는 전화취재를 거부당했고 홍석조 검사와는 연결이 되지 않아 피고소인쪽의 이야기를 신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논설위원〉